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Family Adjustment Process Experience in Married Immigrant Women

박병금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yung-Kum Park(bkpark@sdu.ac.kr)

요약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들 여성들과 가족들이 함께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6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은 8개의 범주와 37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경험의 8가지 범주는, '국제결혼을 결심함', '첫만남과 결혼', '한국살이를 시작함', '부부가 되어감', '남편과 적응해 감', '시댁과 가족이 되어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음', '친정가족이 그리움', '한국살이에 적응해 감'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경험은 하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일반적인 다른 가족과 다를 것이 없는,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여성들과 가족들의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중심어 : | 결혼이민여성 | 가족적응 과정 | 현상학적 연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henomenological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family adjustment process experience according to married immigrant women's perception an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research, six 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t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In addi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a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meaning of family adjustment process experience in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identified as 37 themes and 8categories. The 8 categories consisted of "deciding to marry a foreigner", "first meeting and marriage", "starting to living as a korean", "getting along with husband", "becoming a family with in-laws", "playing one's role as a mother", "missing hometown and family", "adjusting to living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meaning of family adjustment process experience in married immigrant women. And lastly, this results made suggestions for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for them and their families.

■ keyword : | Phenomenological Study | Married Immigrant Women | Family Adjustment Process Experience |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비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Seoul Digital University in 2010.)

접수번호 : #121115-003

심사완료일 : 2013년 01월 02일

접수일자 : 2012년 11월 15일

교신저자 : 박병금, e-mail : bkpark@sdu.ac.kr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34,200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남자와 외국인여자의 결혼이 한국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결혼보다 약 3.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7]. 1990년대 초반까지의 국제결혼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대부분이었고, 전체 결혼 건수의 1% 정도이었다[38]. 한편, 1970년대 이후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인한 농촌 여성의 도시 이동과 농촌 노총각의 양산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요인과 맞물려 결혼시장에서 밀려난 한국 남성들의 결혼 중개업소를 통한 상업적 결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중국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의 증가로 이어졌고,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주의 여성화(feminized migration)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최근 10여년간 관찰되는 이주는 대다수가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한국남성과 자본이나 기술력이 없는 단신의 제 3세계 결혼이민여성의 결합[25]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이민을 통해 한국인 남성과 부부가 되었고, 가족으로의 적응과 함께 우리 사회문화의 동화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매우 다른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자기가 자라난 문화에서 익숙해진 가치와 역할로부터 새로운 문화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언어, 사회적 규범이나 역할기대와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갈등을 경험한다[25]. 반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 없이 결혼이민여성들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기 보다는 한국문화로의 일방적인 편입을 요구하였다. 결혼 후에도 여성에 대한 강한 차별현상은 결혼이민여성의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초래하여 결국 국내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17].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의 부작용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인권과 관련한 연구[13]에서부터 그들을 중심으로 부작용과 스트레스, 또는 폭력, 가족해체 등 부정적 결과에 중점을 두었거

나[26][33][36][38], 부부갈등과 결혼만족 등의 부부관계나 결혼적응[15][20][27], 그리고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25]에 주요한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요구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현재 여성가족부 내에 다문화가족과를 설치하여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생애주기적 접근을 위해 입국전 결혼준비기,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그리고 역량강화기로 나누어 맞춤형 서비스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입국전 교육이나 한국어교육, 자녀양육상담 등에 치중하여 배우자나 그 가족보다는 결혼이민여성의 일방적인 우리 사회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을 위한 훌륭한 기반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삶도 일반적인 여성들의 결혼생활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과제가 있을 것이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떻게 그들과 관계하고 이해하며, 함께 변화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나아가야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의 문제는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남편과 그의 가족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을 통한 가족의 재구조화가 함께 요구되는 실제적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여성들과 가족들의 적응은 자녀와 가정의 안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적 통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혼이민여성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에 대한 실증적인 탐색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와 접근들의 초점, 대상, 내용,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의 일상생활을 민감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즉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적응해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탐색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한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천적인 지원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부족하다. 그동안 외국은 물론 국내의 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들, 특히 저개발출신의 여성들의 경제 선진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여성의 상품화’ 또는 ‘이주의 여성화’ 등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28].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적응하여 가는 과정의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지, 특히 어떠한 가족 상호작용 및 적응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심층적 탐색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질적 연구 방법이 이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고 역동적이고 다양한 가족 경험과 문화를 의미 있게 다루는데 적절하다. 논리실증주의에 근거하여 객관적 실체를 가정하고 외부적인 관점에서 연역적으로 이론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는 양적 연구들은 특정한 요인들의 영향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31]. 또한 양적 접근은 인간 행위 이면의 의미를 찾아내어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대상자의 사고, 지각, 느낌에 대하여 조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현상학적 방법은 대상자의 언어, 신념, 문화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에 내재해 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49]. 오늘날 인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당사자의 내적 경험을 심도 있고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현상학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의미를 기술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드러내는지를 보는 것, 참여자들의 경험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포함하는 문제를 연구할 수 있게 한다[44].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현상에 대해 그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에서 자료를 얻고 그들의 내면세계

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족 구성의 주체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시각에서 조명된 생생한 체험정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과 남편,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정책과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현장에서 유용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

1. 결혼이민여성의 결혼과정은 어떠한가?
2.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과정은 어떠한가?
3.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적응과정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검토

가족적응은 가족구성원들이 새로운 균형과 적합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가족 내외적인 필요와 목표에 따라 가족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48]. 또한 가족적응은 위기의 가족에 새로운 수준의 균형, 조화, 응집을 가져오는 것이며[45], 가족이 역경 이전에는 문제를 예방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는 협동, 타협, 상호노력 등의 효과적 대처전략을 통하여 긍정적 적응을 성취하려는 것이다[30]. 한편 가족과정은 가족이 변화와 지속을 위해 당면하는 가족 내외부의 다양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 상호작용을 의미한다[29]. 건강한 가족에도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발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해결하는가가 이슈가 된다고 했다[4]. 따라서 가족적응 과정이란, ‘가족과정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와 갈등 그리고 기회의 문제를 다루고 극복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인 남편들과는 각각 다른 문

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 왔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족들과 제대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며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있다. 윤혜미[25]는 외국여성 단신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의 삶 속으로 진입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양상은 국제이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어려움 외에도 가족구성원 중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적응의 부담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가족적응 과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결혼이민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적 갈등문제가 심각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에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이민여성들의 현황과 이해[16]들을 기본으로 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생활·결혼·심리적 적응[15][19][32]과 가족건강성[7] 등을 중심으로 생활스트레스나 우울, 결혼만족도 등의 영향요인들을 비교분석하거나 사회적 지지나 사회관계망, 대처전략 등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들과 남편을 대상으로 한 감정관점이나 레질리언스 관점[6][9][14][25]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연구[11][12][26]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역할이나 적응의 연구와 고부관계 등의 연구[2][23][34]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공통된 주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들 여성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가에 있거나,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구성원과 가족이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제까지의 대처노력은 이들 여성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새로운 가족문화의 재구조화보다는 일방적인 편입을 요구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야 할 때이다.

둘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 문제와 어려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폭력 등 극단적 경험을 했거

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강조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39]. 물론 이제까지 결혼이민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 중에서 폭력과 인권유린과 관련한 사항이 두드러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생활을 갈등과 폭력만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이들 여성들은 다른 사회문화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한국인들과 다른 경험들을 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언어나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차이에서 겪는 문제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간의 결혼생활에서도 성격과 문화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를 가장 많이 겪는다. 이것은 주요 이혼 사유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을 ‘매매혼’으로 규정하고 ‘국제결혼의 덫’에 걸린 희생자로 이미지화하여 고착화한다는 것[24]은 오히려 결혼이민여성들을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시키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양적조사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결혼이민’과 ‘이주의 여성화’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흐름이었으므로 기초적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었던 것은 당연한 점이다. 지금까지의 질적연구들도 오히려 시어머니나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2][23][34]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고향의 중국 한족여성을 한정해서 한국생활 적응[35]을 살펴보거나,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21]이나 가족생활적응전략[53], ‘부모됨’에 대한 경험[23], 가정폭력대처과정[53], 지역사회적응[55] 그리고 이들의 입국위면트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7]. 그리고 결혼이민여성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함께 면접하여 이들 여성들의 다문화가정의 적응유형을 살펴본 연구[3]가 있다. 이들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들의 가족과 한국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그들 가족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치며 어떻게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가

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가족변화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응과 함께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붙이기가 아닌 우리 사회의 하나의 일반적 가족단위의 하나로서 관심을 가질 때인 것이다. 이에 이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와 이방인들과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의 경험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현상학적 연구

기존 연구 자료들과 양적연구방법으로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활해 나가는 가족과정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적응 과정을 통해 지각되고 판단되는 복합적인 경험을 연구하였다. 질적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대상자들의 기술을 분석하여 그들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한다[5]. 현상학이란 주체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으로서, 질적연구방법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40]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가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겪는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심층면접을 통한 Colaizzi[4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이는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의 본질·이러한 전

후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18]. 첫째,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해낸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한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한다. 넷째,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theme), 주제 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

2. 연구 참여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었으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method) 중 기준표집을 하였다. 충북 청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연구 참여의 의사가 있는 총 6명의 결혼이민여성들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기존의 질적 연구들[2][3]이 적용의 과정을 볼 때 1년 6개월에서 2년을 주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서 참고로 하였다. 또한 이들 모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어 가족주기과정 상의 초기단계는 모두 거쳤으므로 가족적응 과정이라는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적합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결혼기간, 결혼생활유지, 자녀출산과 양육경험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준표집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적절한 사례를 소개받았다는 점에서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사용하였다. Goets와 LeCompte[57]가 제시한 준거적 선택방법 중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은 특정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가족적응과정의 경험을 듣기 위해 한국어소통이 수월하고 결혼기간 등의 조건 등을 충족하여야하는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요리,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어로 기본적인 일상 대화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면담은 한국어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모두 충청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편중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을 보고자함임으로 거주지역이라는 일반적 특성은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 이민 여성	출신 국	연령	결혼 년도	학력	자녀 수	배우자		
						연령	학력	직업
참여자 1	베트남	24	2007. 5	고졸	1	42	고졸	회사원
참여자 2	캄보디아	24	2007. 10	고졸	1	40	전문대졸	회사원
참여자 3	중국 (한족)	28	2007. 9	고졸	2	45	고졸	회사원
참여자 4	베트남	26	2008. 5	중졸	1	45	중졸	회사원
참여자 5	베트남	23	2007. 4	중졸	1	40	고졸	회사원
참여자 6	베트남	27	2006. 12	고졸	1	30	전문대중퇴	농업

3. 자료수집방법과 과정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결혼이민여성들과의 면담 이전에 센터장과 직원을 각각 두 차례씩 만나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았다.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 중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연구자는 가능한 한 탐색하고자하는 경험들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그려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면접 직후 필드노트(field note)에 면접과정에서 떠올랐던 주요 아이디어와 연구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과정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면접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점검하거나 주요한 추가질문사항들을 다음 면접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며, 면접내용을 모두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해 녹음을 하였다.

이외의 자료의 정확한 의미 확인은 개별면접과 전화를 이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녹취된 면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였다.

연구대상의 경험을 끌어내기 위해 개방형질문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주요 질문은 ‘결혼 과정은 어떠한가?’, ‘한국생활은 어떠한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면접 전에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연구 동의서를 교환하였다. 동의서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목적, 면접내용에 대한 활용, 비밀보장, 녹음에 대한 허락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접 내용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기간 동안 연구대상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개별 면접이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1인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외 5인은 그들의 집에서 총 2회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자의 집에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가족들과의 상호작용도 관찰하며 자연스러운 가족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 면접은 현상학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박사과정생인 연구보조원 2인이 함께 총 3인이 직접 실시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이 직접 녹취하였고 녹취내용을 서로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4. 자료분석과정

Colaizzi[42]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분석한 절차에 따라 첫째, 녹음한 면접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대상의 말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둘째, 기술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았으며, 셋째,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을 대상들의 언어로 소주제화 한 후, 넷째, 소주제들을 통하여 범주화 작업을 실시한다. 주제를 현상학적으로 구조적인 기술을 하였다[18].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과정 경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진행하

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녹취한 원자료와 필사자료를 비교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전화 통화로 재확인하였다.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여 문자화하고 진술을 반복하여 읽고 다음으로 본질을 찾고자 의미 있는 진술을 찾는 작업을 통해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소주제화 하여 범주화하는 단계를 총 4차례 거쳤다. 추출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소주제화하여 최종 8개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참여자가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이들이므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참여자 중 2명에게 면접내용을 보여주어 연구자들의 기술내용과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 사실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진술내용에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지 않는 상태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여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5. 엄격성 평가방법

질적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엄격성(rigor)을 평가하기 위해 Lincoln과 Guba[46]가 제시한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41].

사실적 가치, 즉 참여자들의 생각과 실재를 잘 반영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터뷰 시작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고 본질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한 맥락적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대부분 그들의 가정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시댁가족이나 지인 등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다과를 하거나 앨범 등을 보며 살아온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맥락이나 주제에도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적용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일관성은 어떤 연구가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되었을 때 연구결과가 거의 동일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각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질적연구와 현상학적 연구를 여러 번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여러 차례의 자문을 받고 협의하여 수정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선이해, 편견, 가정 등을 갖지 않도록 연구의 시작에서 끝까지 노력하며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뷰 초기에는 특별한 질문없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스럽게 연구주제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유도적인 질문을 지양할 수 있었다.

IV. 연구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과정 경험에 대한 원자료를 여러 차례 읽고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으며,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중복된 진술을 제외한 구성된 의미가 추출되었다. 재진술한 의미를 가지고 37개의 주제를 조직화하였으며, ‘국제결혼을 결심함’, ‘첫만남과 결혼’, ‘한국살이를 시작함’, ‘부부가 되어감’, ‘시댁과 가족이 되어감’, ‘엄마노릇이 시작됨’, ‘친정가족이 그리움’, ‘한국살이에 적응해 나감’의 8개의 범주로 합치기가 되었다. 이 8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 여성의 가족과정 경험은 상호연관되어 있어 결혼의 선택에서부터 한국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참여자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기술하였다.

표 2. 가족과정 경험의 의미

범주화	주제
국제결혼을 결심함	결혼생각이 없었음
	한국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 알게 됨
	가족들이 권유함
	한국이 살기 좋을 것 같았음
	가족을 도와줄 수 있음
	우리나라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착할 것 같았음
첫만남과 결혼	부모님이 국제결혼을 걱정함
	중매를 통해 만났음
	남편의 첫인상이 착하고 좋아보였음
	통역을 통해 대화함
	짧은 기간에 결혼을 결정함
한국살이를 시작함	결혼식을 두 번함
	처음 본 한국이 좋았음
	얘기하고 싶은 말을 못해 답답함
	한국 음식을 못 먹음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름
부부가 되어감	갈 데가 없어서 외로웠음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같듯이 생김
	우리나라 말과 음식을 남편이 노력함

	남편은 '나빠 아니야' 임
	남편과의 일상생활
시댁과 가족이 되어감	시아머니와 차이를 겪음
	시댁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줌
	몸조리를 시어머니가 해주심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함
엄마노릇이 시작됨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음
	아이를 위해 한국말이 배우고 싶어짐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음
친정 가족이 그리움	고향 가족이 그리움
	친구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음
	고향에 갈 때 가지고 갈 것들을 생각함
	동생이 한국으로 돈 벌러 왔으면 함
한국살이에 적응해 나감	한국말과 음식에 적응해 감
	한국의 일상생활에 적응해 감
	아줌마가 되어감
	돈을 벌고 싶음
	앞으로 해 보고 싶은 것이 생김

1. 국제결혼을 결심함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기보다는 ‘재미있는 것’만 생각하였다. 본국의 다른 또래들보다는 다소 늦은 나이가 되어 친구나 가족들이 결혼해야 할 나이임을 이야기하며 결혼을 권유하였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결혼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재미있는 것만 생각했어요. (참여자 2)

제가 결혼할 때 26살이니까 중국에서는 22살 때쯤 모두 일찍 결혼해요. 친구가 ‘결혼해야 해’ 자주 이야기 했어요. 25살 정도 결혼 안하고 싶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참여자 3)

이들은 평소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한국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와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다.

한국드라마 좋아해서 한국 와보고 싶었어요. 한국드라마 많이 재미있어요. 눈물도 많이 나구요..... 직장에 다녔는데 사장님이 한국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참여자 6)

참여자 모두가 친구나 사촌언니, 고모 등 먼저 한국

으로 국제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친정가족들이 그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이나 시댁가족도 한국에서 국제결혼해서 잘사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결혼시킬 것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친구는 조치원에 살았는데 친구의 남편의 친구였어요. 친구가 소개시켜줬는데 아무생각 없이 엄마 말 따라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1)

이들은 한국남자가 책임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를 키우기에 한국이 더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참여자들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이 더 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사촌언니와 오빠 여기 와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 언니오빠가 ‘여기 나라가 좋아요. 일하면 월급도 많이 받아요. 사람도 한국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언니들 엄마,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 좋아해요. (참여자 2)

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결심한 데는 한국이 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친정가족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작용하였다. 한국과 이들 나라의 환율이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도 하였다.

여기 와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고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 도와줄 수 있어요. 살기 힘들어서 한국에 오고 싶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월급 100만원이면 너무 많아요.(참여자 2)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아마 잘 살거야..... 제가 시집 가서 잘 하면 다음에 제 아이들한테 더 잘해 주면 좋아. 베트남보다 여기 더 좋아. 아이들 한국 공부도 많이 시키잖아요. 다음에 우리 아이들...(참여자 5)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을 결심을 한 데에는 본국의 남자들보다 한국남자들이 더 ‘착하다’는

생각도 큰 작용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조건으로 '착한 남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아기 낳고 힘들어 하잖아. 힘들면 참지 않고 도망해서 아내가 아기 키우고 더 힘들게 살아..... 친정엄마가 키워주고 많아. 지금 그런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멀리 가도 착한 사람 만나야 더 좋지.(참여자 5)

딸을 위해 국제결혼을 권유하고 허락한 부모님들이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으로 시집보낼 것을 매우 걱정하였다고 하였다.

많이 걱정해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한국말 몰라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있어요. 어떻게 잘해.. 많이 걱정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랑 잘해. 친정엄마 많이 울었어요.(참여자 4)

2. 첫만남과 결혼

결혼이민여성들은 국제결혼을 결심한 후 한국에 먼저 온 친척 또는 친구들이나 국제결혼중개업체(센터)를 통해 한국인 남성들을 소개를 받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가 소개를 하는 경우에도 결혼의 절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였다.

사진 안 보고.. 그냥 신랑 베트남 와서 중신과 한국 사람 한 명과 결혼해요. 와서 만나 좋아 결혼해 안좋아 하면 안결혼해요.....한국인 신랑 집에 가족 몇 명 있어요. 엄마 아빠 살아 있어요. 집에 어디서 회사 무슨 일 해요. 나이 몇 살 다 이야기해요.... 얼굴은 만나요.(참여자 4)

참여자들 모두 남편들의 '착하고 좋아 보이는 인상'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남편의 첫인상에 대해 '착하게 보였다'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였다.

그냥 착한 사람만 보여요... 제가 남편보고 착하고 제가 신랑과 나한테 잘 하나봐 생각도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괜찮아. 착하고 그렇게 보여. (참여자 5)

참여자들과 남편들은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나 결혼중개업체의 통역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였다.

머칠 우리집에 가고 나중에 한국 와서 언니 조선족이니까 한국말도 알고 중국말도 아니까 자주 전화해서 통역 전화연락하고... 나중에 내가 중국에서 결혼서류 만들어서 한국 왔어요..... 우리 남편 전화하면 못 알아들으니깐 여기 조선족 언니가 있으니깐, 날마다 퇴근 후에 가서 통화해요.(참여자 3)

참여자들은 대부분 한두번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결정하였고 첫만남 후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1-2주 정도 이내에 이루어졌다. 이후 서류를 작성하고 약혼이나 결혼식,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간까지 대체로 2-4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싶다 정도만 했어요. 연애는 4개월 정도요.....만나고 머칠 있고 나중에 한국 와서 4개월 통화하고 우리 남편 서류 가지고 중국 왔었어요.(참여자 3)

한 달 만나요. 어디가 놀러요.. 만나요 좋아요 결혼해요....베트남 결혼해서 2개월 반 한국 왔어요.(베트남 4)

참여자들은 모두 본국에서 사진을 찍는 형식을 통해 약혼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였다고 하였다. 본국에서 여러 부부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본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한국에서 그곳으로 가서 시댁 가족들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 결혼식을 한 번 더 한 참여자들도 있었으며, 이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한국으로 와서 결혼식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그냥 사진만 찍고 한국 와서 결혼했어요. 애기아빠랑 만났을 때 조금 가족들만 결혼사진 찍고, 밥 먹고, 그 다음 한국 왔을 때 와서 결혼식했어요.(참여자 2)

제가 베트남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했어요. 그냥 고모 왔어요....여기서 부산 갔다 왔어요..아니 베트남도 갔다 왔어요...호치민? 아기 아빠 친구이 몇 명 같이 갔어... 친구 놀고 먹고 같이.. 재미있었어요.(참여자 5)

3. 한국살이를 시작함

참여자들은 결혼 후 한국에 처음 와서 고향과 매우 다른 날씨와 풍경들을 보고 신기하면서도 좋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국에서 살 때보다 집이 더 넓거나 길이 좋은 것 등 주거환경이나 전반적인 생활조건이 더 나은 것에 대해서도 만족해하였다.

저기 베트남에서 자동차 많이 없어요. 여기 한국 와서 자동차 너무 많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다.. 여기 좋아. 산 많이 있어요.(참여자 4)

날씨도 좋구요. 고향은 더운데 여긴 안 더워요. 저는 추운 거 좋아요, 눈 오는 것도 이뻐요, 한국이 다 좋아요.(참여자 6)

결혼이민여성들은 좋은 첫인상으로 한국살이를 시작하지만 결혼 전 걱정만 바대로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얘기하고 싶은 말을 못해 매우 힘들고 답답하였다고 하였다. 말이 안 통해 외로웠었다고 말하며 이것이 제일 속상했었던 기억이었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제가 듣기하기 쓰기는 잘하는데 말하기가 부족해요. 조금 힘들어요. 얘기하고 싶은 말이 안 나와서 답답해요. 제가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남편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만났을 때) 그냥 같이 가서 밥 먹고 얘기 듣고 그냥 들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참여자 2).

참여자들은 한국음식이 입에 안 맞아 힘들었다고 했다. 대부분 한국에 온 초반에 임신을 했고 입덧까지 하였으므로 더욱 힘들었고, 고향 음식이 매우 그리웠다고 했다. 게다가 한국의 매운 음식들을 먹는 것도 힘들어서 '무서웠다'고 표현하는 이도 있었다.

임신해서 3개월 동안 계속 누워있었어요. 밥 못 먹었어요. 그때 중국음식 많이 먹고 싶었어요. 한국음식 안 맞으니까.... 처음에 가장 힘들었는데 말 안 되니까 이거 뭐 음식도 맛이 안 맞으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참여자 3)

베트남에서 고춧가루 안 먹어요. 그냥 고추 조금 먹어. 고춧가루 안 먹어요... 한국 김치는 다 매워, 아우 무

서워, 다 매워요. 안 먹었어요. 엄마 여기 음식 빨간 나와 못 먹어...(참여자 4)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살이를 시작하며 한국과 고향의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차이'일 뿐이며,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각되는 정도였다.

한국회사 일 너무 빨라요. 쉬는 시간 없어요. 중국은 여기처럼 그렇게 바쁘게 안해요... 중국식당 일하면 쉬는 시간 많아요. 근데 여기 한국식당 사장님도 같이 일해요. 중국 그렇게 안해요. 사장님 그냥 놀아요, 쉬어요.(참여자 3)

베트남에서 아기 낳고 국 안돼요. (친정 엄마가) '어? 소고기 먹어 큰일 나! 진짜 이상하다.'.. 아니야, 한국에서 소고기 먹어 좋아. 국 먹어서 오줌 많이 안돼요. 돼지 족발 많이 먹어 젖 많이 나와요...(참여자 4)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살이 초반에는 한국말이 서투르고 낯설어 갈 데가 없어 집에만 있어야 했었다. 이들은 주변에서 처음 결혼할 때 소개해 주었던 친지들이나 같은 나라의 친구들과 만나 일상생활을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어..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친구도 없고 맨날 집에만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 나갈 때는 말 못 하면 친구도 못 사귀잖아요. 한국말 잘 못하면 어디 못 나가잖아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 얘기 아빠는 맨날 출근.. 저녁 때 오고 낮에는 계속 집에만 있었잖아요...(참여자 2)

4. 부부가 되어감

참여자들은 모두 남편이 결혼 전 생각했던 대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모든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한 일상생활의 살이 동안에 나타나는 서운함과 갈등들을 털어 놓았다. 이것은 주로 집안일이나 육아 등을 남편이 등한시하는 부분이나 옷차림에 대한 잔소리 등에 대한 것이었다. 말수가 적고, 효자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적 정서에 대한 것도 있었다.

저는 친구들 다하는데 나도 하고 싶어. 아기가빠는 싫어해요. 한국 사람 화장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 피부가 하얗잖아요. 화장하면 너무 이뻐요. 아이라이너도 하고 저도 하고 싶는데 아기가빠 보고 '지워 지워'. 옷도 반바지 반치마 입으면 '싫어 싫어' 그래요.(참여자 2)

한국사람 너무 바빠요. 남편 너무 바빠서 집안일 도와주도 못하니까, 계속 회사 다니니까.(참여자 3)

참여자들은 남편이 고향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말을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남편의 응원과 지지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치가를 챙기고 도와주며, '손도 이렇게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짧게나마 대화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남편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중국말 이야기하고 남편 천천히 중국말해요. 아이들 때문에 가끔 친정한테 전화하니까 우리 남편 자주 물어봐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오래 전화안하면 궁금하니까 그렇게 챙겨요.(참여자 3)

나 베트남가고 싶어, 음식 느끼고 싶어, 사취, 그러면 '알았어, 사줄게' 그래요. 남편은 '안녕하세요' 정도요. '아빠', '엄마' 정도 알아요...(베트남 가족과) 말이 안통하면 책보고 얘기해요. (참여자 6)

참여자들은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나쁜 사람 아니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 주고' 나에게 잘해 주는 좋은 사람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서툰 한국말로 남편을 '나빠 아니야'라고 표현하였다.

결혼하고 나서 제 생각엔 국제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다행히 신랑이 잘해줘서 잘했구나 생각해요.... 한국남자가 베트남 남자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신랑은 나은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결혼했을 때는 생각 안 했어요, 한국 와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참여자 1)

우리 신랑 와이프 진짜 잘해요. 아들 낳고 예뻐 진짜 좋아. 밥 잘하든 될하든 '좋아요'해요.... 아기가빠 결혼해서 '좋아 잘해'. 아기가빠 나빠 아니야.(참여자 4)

결혼이민여성들도 남편과의 일상은 말 그대로 일상 생활이었다. 남편이 퇴근 후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TV를 보거나 하루일과를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같이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바쁘고 피곤해 하는 남편을 이해하면서도 잘 도와주지 않고 자주 외출하지 않아서 야속해하기도 하고, 아기가 태어난 이후 달라진 생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말 별로 없어요. 집에 와서 밥 먹고 TV 봐요. 가끔 인터넷 조금하고 지금 애들 있으니까 애들이랑 놀아요. 말 많이 없어요.....아기 때문에 계속 잠을 못자서 아기 우니까 우리 남편까지 잠을 못자요. 바쁘니까 집에 와서 도와줘 못하는데, 우리 남편 집에 와서 날마다 '피곤해요, 피곤해요'. 뭐 시키고 싶었는데 피곤해요...(참여자 3)

5. 시대와 가족이 되어감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이해와 갈등과 함께 시어머니와의 '차이'로 인한 부딪힘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언어적 차이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한국의 여느 며느리들처럼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의 차이와 고부관계라는 숙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좋은 분인 것은 아는데, 문제는 나이가 많아서 옛날생활하고 요즘 생활하고 다른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주방에서 많이 싸워요,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음식 만드는 것 옛날방법으로 하시고 우리는 지금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참여자 1)

우리 남편 설거지해라. 우리 시어머니, '에이, 남자 설거지안하는 거야'. 제가 해라해요...지금 여자도 회사 다니고 남자도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살림 다 같이 해야지. 근데 옛날 사람들 시어머니 남자 집안일 살림 도와주는 것 안 좋아하니까. 우리 중국 남편들 다하니까 하면 우리 시어머니 웃어.(참여자 3)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나 시댁의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아끼고 위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플 때 옆을 지켜주고 걱정해 주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느껴졌다고 하였다.

모르면 많이 물어보고 편해. 처음에 한국말 못해. 힘들지만 괜찮아. (시어머니와) 지금 딸처럼 잘 지내. 신랑보다 시어머니 더 좋아요. 처음에 좀 무서워. 시어머니가. 아버지도 괜찮아요. 제가 더 이해하고 시집도 이해해주고 처음에 엄마도 신랑도 다 고모들(시누이들)도 이해해주고 말 못해도 많이 도와주고..(참여자 5)

신랑은 가족 많아요, 저는 혼자예요. 시누이도 착하고 도련님도 착하고. 처음에 한국 와서 감기가 걸려 많이 아팠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프니’.. 그러시고, 친정엄마랑 똑같아요. 걱정 없어요... 집에 있을 때 베트남 옷 입어도 된다고 하시고...(참여자 6)

결혼이민여성들은 출산을 통해 친정엄마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산후조리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음을 나누고 정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친정이 멀어 출산할 때 친정의 지지를 받기 어렵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전적인 도움을 받으며 의지하게 되면서 가까워지는 주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애기 낳았을 때 잘해줘서 우리엄마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말로는 못했어요. 마음은 있는데....(참여자 1)

어머님 도와줬어요. 제가 수술해요. 애기 너무 커요 4kg. 머리 커요. 미역국 먹고 밥 먹고 다 도와줘요. 다 잘해요. 많이 고맙고...(참여자 4)

시부모들은 며느리들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내색하지 않고 도와주며, 참여자들은 존경과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시부모들은 며느리에게 ‘예쁘다’라는 최고의 칭찬의 말과 말없이 챙겨주는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아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어머님” “어머님”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지 마, 엄마 해라’.... 어머니는 ‘에미야’라고 하세요.(참여자 4)

제가 아기 아빠랑 가끔 싸우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모른척해. 불편이 없어요... 아기 아빠가 잘 못했다고 제가 얘기해도 자기 고집 있어 듣지도 않아. 제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시어머니, 혼내줬어. 신랑이 잘 못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신랑한테 혼내줬어요.(참여자 5)

6. 엄마노릇이 시작됨

참여자들은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유식을 하며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통해 ‘엄마’임을 느낄 수 있었다.

임신 때도 책도 많이 읽어주고 신랑도 많이 읽어주고 태어날 때 책도 특히 많이 했고 지금도 책도 좋아해요. 6개월 때 야채 괜찮다고 해서 그때 만들어서 해줬어요. 쌀가루에 비오비타도 넣고 그렇게 먹었어요. 책도 사왔어요. 혼자 배웠어요.(참여자 5)

결혼이민여성들은 처음 한국살이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한국말 배우기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위해 한국말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아이와 잘 대화하고 싶은 것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엄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걱정하기도 하였다.

한국말.... 잘하면 지금보다 편하잖아요. 애기를 위해서도 한국말을 잘 해야겠다 생각해요.(참여자 2)

제가 지금 다 공부하고 싶어.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요. 다음에 아들 커서 같이 공부하라고 엄마 공부 잘하면 아이들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공부하고 싶어요. 다음에 친구들이 니가 엄마가 외국사람이니까 바보같이 잘 못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요.(참여자 5)

참여자들 모두 아이가 잘 컸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자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여느 부모들처럼

럼 아이에 대한 바램은 착한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생각하고 있었다.

애기 낳은 것이 제일 행복해요.. 좋은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학교 공부만 해요. 여기 학생들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잘 키워서 이것저것 잘해주고 싶어요.(참여자 1)

저는 두 명 좋아요. 아들 있고 딸 있으면 좋겠어요. 아들만 있어도 좋아요. 남편도 2명 좋아해요. 00이 똑똑해서 가족들이 좋아해요. 건강하고, 착하라고 기도 많이 해요. 베트남말로 기도해요.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크면 공부 잘하면 힘 안 들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농사 하지 말고, 힘들어요.... 시아버님이 사장님 되래요. 00이 아빠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시부모님이 맘이 아파서요. 00이는 잘 하라고....남자 키 커야 이빠요. 걱정이예요. 아들이 키가 작을까봐.(참여자 6)

7. 친정가족이 그리움

결혼이민여성들도 친정에 자주 전화를 하고 일상생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속상할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생각난다고 하였고, 고향에서 고생하고 있는 가족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오는 날은 더욱 고향이 생각나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냥 아기 얘기만 해. 베트남 엄마 아버지가 우리아가 처음 손자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가끔 부부 싸울 때 있잖아요. 한국에 처음에 올 때 진짜 잘 살 가야. 가끔도 외로워서 베트남도 가고 싶다고. 배 타고 일하는데 비 많이 오면 걱정돼요. 동생이 군인 가서 아빠 혼자서 해요.(참여자 5)

결혼이민여성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 향수를 달래고 동료애를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같은 나라 출신의 여성들이 주로 모여 모국어로 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고향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수를 달래기도 하며, 육이나 일자리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다들 공부하니까 연락처 가르쳐주고 가끔 연락해서 어디 가서 모임해요. 다들 중국말로 말 잘해요. 남편 술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이들 얘기 더 많이 해요...아기 얘기 아니면 나중에 회사 다니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해요.(참여자 3)

참여자들은 고향에 다니러 가는 것에 대해 평소 많은 계획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미 다녀 온 이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방문하였던 경우도 있었으며, 아직 한 번도 고향에 다녀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현재 고향방문을 준비하는 참여자 6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가 해 주신 음식을 먹을 생각에 매우 행복해 하는 모습이였다.

우리 남편이 전기 밥솥 사가지고 가자고... TV에 나와요. 영양탕 만드는 것 사고 싶어요. 인삼, 배 만드는 거.... 우리 갈 때 뭐 선물을 사야하니까..(참여자 3)

3년 동안 동생과 조카를 못 봐서 보고 싶어요. 그냥 가족들과 얘기할 거예요. 맛있는 베트남음식 먹고요. 어떻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 얘기하구요. 해산물탕요. 쌀국수.. 맛있어요... 선물은.....(참여자 6)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살이에 적응하고 잘 살아가면서도 고향의 가족들이 생각나는 것이다. 처음 한국으로의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한국이 경제적 물리적인 여건이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한 것과 가족을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것이다.

아직 안 왔어요. 내년에 어머니 아버지 신랑이 돈 줘서 남동생 여기와 일해. 2년 후에 베트남 가요. 여기 집에 같이 살아요. 여기 좋아요. 한 달에 돈 많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한달에 조금만 해. (참여자 4)

여기 공장에서 일하도록요. 한국 돈이 20만원이면 베트남에서 돈으로 바꾸면 200만원이에요. 베트남에서 1년 동안 일하는 것이라 한국에서 한 달 일하는 거랑 같아요. 일도 힘들고요. 1,2년 동안 여기 와서 안 힘들게 돈도 많이 벌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살았으면 좋겠어요.(참여자 6)

8. 한국살이에 적응해 나감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말 배우기를 가장 열심히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들이 많은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말 배우기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다. 처음에는 ‘무섭기’까지 하였던 매운 음식도 잘 먹게 되었다.

아기 임신했어요.. 제가 3개월 김치 무서워요. 4개월 5개월 다 잘 먹어요. 매워 다 먹어요... 된장, 된장찌개 지금은 다 먹어요. 김밥 좋아해요. 제가 김밥 해요. (참여자 4)

처음에 엄마(시어머니)가 가르쳐줘서 2주정도 그렇게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신랑도 많이 도와주고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심심하지 외롭지. 아무것도 한국말 안배우면 잘 못하잖아요. 통화도 못하고 시어머니랑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얼마나 외롭지.(참여자 5)

참여자들은 모두들 병원이나 마트를 다니며 매일 드라마를 보고 있고, 직접 살림을 꾸리는 등 여느 한국의 주부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은 한국어가 익숙해져서 관공서나 은행도 다니는데도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참여자 2는 모국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였다.

생활.. 어.. 어디 은행 같은 거. 은행가도 마트가도 사람이 친절하고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은행도 갈 수 있고, 병원 소아과도 같은 거 다닐 수 있어요.(참여자 1)

결혼이민여성들의 하루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이 출근한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청소하고 시장에 가는 등 여느 한국의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하며, 생활비에 대해 남편과 의논하며 나누어 쓴다고 하였다.

월급은 옷, 버스 타요. 얘기 우유사와, 어린이집...어머님이 집에 가스(생활비) 다 내요. 제가 지금 일가요. 어머니 좀 줘요. 30만원 줘요. 120만원 많이 받아요. 통

장으로... 나중에 얘기 커요. 학교가요. 이야기해요.(돈 쓸 때 남편과 서로 의논함)(참여자 4)

시장 가는 건 시어머니이 하시고... 밥은 지금은 제가 해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2년 잘살았더니 혼자 (살림) 다해요.... 지금은 많이 안 바쁘고, 4, 5월에 일(농사)...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빠요.. 재우지 않으면 얘기는 업고 일해요.(참여자 6)

참여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살아가면서 아이와 가족을 위해 나중에 위해 돈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참여자들 중에는 남편이 돈에 관심이 없어 속상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 남편이 반대하지만 실제로 직장에 다녔었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월급은 생활비로 쓰거나 저축한다고 하였고 친정에 일부 보내는 이도 있었다.

우선 제 생각엔 돈을 많이 벌어서 잘해주면 좋겠다고. 지금 어리지만 혼자두고 회사다니기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벌어야하니깐요. 남편이 맨날 그만두라고 그러고 제가 계속 다니고 싶다고 그러죠...(참여자 1)

그냥 돈이 많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도 빨리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남편 혼자 힘들잖아요. 둘이 같이 벌어서 아이들 나중에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참여자 3)

참여자들 모두 배우고 싶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단순히 운전이나 요리 등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결혼이민여성들 자신의 장점을 살려 전문통역사가 되거나 전문식당을 열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다.

공부하고 저도 통역, 번역하고 싶어요.. 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애들 캄보디아 문화 가르쳐주고 싶어요. (참여자 2)

쌀국수 맛있어요. 베트남 가서 쌀국수 배워요. 베트남 떡 배워요. 한국 와서 가게 하나 만들어요. 팔아요. 한번 떡 만들었어요, 베트남 떡. 선생님이 ‘진짜 맛있어요. 한국사람 먹어도 돼’.(참여자 4)

V. 결론 및 논의

1.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과정 경험의 의미에 대한 이해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남편을 비롯한 시댁가족들과 하나의 가족이 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결혼기간이 2년 이상 된 결혼이민여성 6명이었으며, 각자의 면접을 통해 37개의 주제를 조직화하였으며, ‘국제결혼을 결심함’, ‘첫만남과 결혼’, ‘한국살이를 시작함’, ‘부부가 되어감’, ‘시댁과 가족이 되어감’, ‘엄마노릇이 시작됨’, ‘친정가족이 그리움’, ‘한국살이에 적응해 나감’의 8개의 범주로 합치기가 되었다.

먼저, 결혼이민여성들은 국제결혼을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가족적응과정 경험을 시작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주변의 권유에 의해 본국의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고, 친구나 친척 중 한국남자와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본국의 남자들보다 한국남자가 더 착하고 책임감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이 더 살기 좋을 것 같은 생각에 국제결혼을 결심하였다. 멀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로 딸을 시집을 보내는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과 한국남성들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매를 통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통역을 통해 대화해야 하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은 착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남성들의 좋은 인상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였다.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을 하기까지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대부분 사진을 찍는 형식으로 약혼을 하거나, 시댁 가족들까지 모여 결혼식을 하였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소개와 결혼결정까지는 1-2주 내에 이루어졌고, 서류 과정과 약혼이나 결혼식을 하고 한국행을 하기까지는 총 2-4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한국에 온 이들은 본국과 전혀 다른 한국의 새로운 환경이 좋았고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한국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얘기하고 싶은 말을 못해 답답하였고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하였다. 한국말을 못해 집에만 있거나 같은 고향 친구들만 가끔씩 만나면서 외로움을 겪었다. 그리고 한국문화와 자신들의 나라와의 다양한 차이들을 경험하면서 한국살이를 시작한다. 공은숙[2]과 정순돌과 이현주[34]의 연구 결과에서도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 통해 갑갑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한국생활의 초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부부들은 일상생활과 육아의 과정에서 여느 부부들처럼 갈등도 겪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결혼이민여성들의 남편들은 아내 나라 말을 배우고 음식을 먹어 보려 노력하였다. 이들의 남편들은 친정과 자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들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듣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남편의 모습들을 통해 이들 여성들은 남편이 좋은 사람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들의 일상생활은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청소와 설거지를 돕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가며 여느 한국의 가족들과 다름없었다. 이것은 남편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부부관계의 적응전략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인 성향숙[5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남편을 위한 이들 여성들의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부상담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시어머니와도 사고방식이나 의견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는 가족들의 노력과 친정엄마 같이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감을 경험하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출산과 산후조리 과정 중 시어머니의 전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시어머니의 따뜻하고 애뜻한 마음을 경험하고 엄마처럼 느껴지면서 가족으로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윤명숙과 이해경[22]의 연구에서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의 처지에 대해 측은함을 느끼게 되고 친정엄마처럼 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시부모의 일상생활과 며느리의 부부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족 관계임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들[50][55][56]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 실천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도 보통의 엄마들처럼 바쁘고 힘든 엄마노릇을 경험하였다. 아이를 위해 한국말 배우기가 더욱 중요해졌고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게 되었다.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아이가 착하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성향숙[53]의 연구결과에서도 자녀의 교육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다고 하였다. 이들 여성들은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로서의 자신의 모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교육프로그램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살이에 적응하고 차츰 가정이 안정되지만 결혼 이민여성들은 가족과 고향의 그리움을 경험하였다. 어느 한국의 주부들처럼 부부싸움을 하거나 속상할 때 가족이 보고 싶고 걱정을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고향 친구들과 만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자기나라말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짐을 경험한다. 고향에 다니러 가는 것을 생각하며,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를 계획하면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다. 또한 동생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살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말이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힘들고 무섭기까지 하였던 한국 음식도 자연스럽게 즐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가장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었다. 이들은 차츰 은행에 가고 마트 등 시장도 혼자 보러 다니게 되면서 한국살이에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소망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성향숙[52]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적한 바, 이들의 관심은 지역사회안착을 염원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들의 사회적응과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민영[29]은 남북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가족과정 경험의 의미에 대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와 갈등을 겪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민정 등[8]의 연구에서도 제시한 네 명의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이야기가 한편으로는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하층 한국 아내들도 직면한 딜레마나 선택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윤명숙과 이해경[22]은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와 산다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처음에 말만 통하지 않을 뿐 다른 며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여느 가족에게나 가족생활주기라는 것이 있으며 새롭게 파트너가 된 부부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부관계 수립, 확대가족과의 관계의 재조정, 부모기에 대한 의사결정하기의 세 가지 주요과업에 직면하게 된다[43]. 이는 모든 가족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위기의 전환시점이며, 변화로 인해 가족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부부가 되어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가족생활주기 중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전환 중의 하나인 것이다. 본 연구의 결혼이민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그들의 심리사회적 갈등과 도전에 대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가족으로의 적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낮은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가족 내외부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가족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며,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이라는 경험적 이해가 가족복지실천에 제공해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들의 한국어습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편과 가족들을 위한 이들 여성들의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정기적인 부부상담이나 시댁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가족복지프로그램도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대로 결혼이민여성들과 그 가족의 적응과정도 문화에 대한 이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가족들과 다를 것 없었다. 결혼 초기 부부들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부부간 사랑 확인, 부부간 지각차이와 문제해결방식 차이 인식,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0]. 따라서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이라는 이분화된 접근이 아닌 일반적인 부부들과 자녀, 가족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담이나 부모교육, 가족 프로그램 등을 이들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겠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차원의 신원보증 프로그램과 함께 한정된 만남의 기회이지만 서로에 대해 더 알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국의 당사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지원과 서비스에서부터 결혼 전 예비부부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의 준비와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일련의 규정된 프로그램과 과정을 거친 이들에게 한해 만남과 결혼을 하고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결혼이민여성들은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여성들만의 모임과 만남에만 국한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는 동료애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이들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을 통해 육아나 주부로서의 일상의 이야기들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한국의 주부들과 어우러지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어를 통한 일상생활의 대화와 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자녀들과 말이 통하지 않거나, 다른 아이와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한국어 공부에 더욱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입학 초반에 한정하지 않고 지속적·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 과정경험의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 가족복지 실천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와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비교적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역이나 계층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경험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결혼 초기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이므로 비교적 가족주기의 초반의 가족적응과정 경험을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정의 경과와 이들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경험의 변화를 추적해가는 종단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구성하여 이들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양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두 연구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강희순, “다문화가정의 사회심리적 변인과 가정생활 적응간의 경로모형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2호, 제3권, 2010.
- [2] 공은숙, “다문화가족의 고부갈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노년학연구, 제18호, 2009.
- [3]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0호, 2007.
- [4] 권진숙, 신혜령, 김정진, 김성경, 박지영,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8.
- [5] 김미옥,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한국가족복지학, 제10호, 2002.
- [6] 김미진, *베트남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7] 김민정,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학회*, 제16권, 제3호, 2009.
- [8]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텔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회*, 제39권, 제1호, 2006.
- [9] 김송미, *빈곤결혼이민여성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레질리언스 관점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0] 김순옥,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부부교육의 필요성 및 실태”, *생활과학* 4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01.
- [11] 김승권, 조애저, 민현주,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법무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12]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권, 제1호, 2006.
- [13] 김은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4] 김진희,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3호, 2011.
- [15]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호, 2010.
- [16] 남인숙, 장훈성,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봄/여름, 2009.
- [17] 박재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요인분석”, *농촌 경제*, 제29권, 제3호, 2006.
- [18] 신경림,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제12권, 제1호, 2003.
- [19] 안준희, 조정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32권, 2011.
- [20] 안현정,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1] 윤구원,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2] 윤명숙, 이해경, “농촌지역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제20권, 제2호, 2010.
- [23] 윤명숙, 이해경,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부모됨을 통한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제32호, 2010.
- [24] 윤희숙,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8*, 학연문화사, 2005.
- [25] 윤희미,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4호, 2009.
- [2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2010.
- [27] 이규삼,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 [28] 이근무, 김진숙,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2009.
- [29] 이민영,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 [30] 이선애,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 [31] 이시연, 최윤정, 권현진,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포커스집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 2006.
- [32] 이주재, 김순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호, 2010.
- [33] 정선영, *결혼이민 어머니의 개인특성, 부부적응 및 유아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4] 정순돌, 이현주, “외국인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8호, 2010.

- [35] 조경민, *고학력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2010.
- [36] 최금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37] 통계청,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0.
- [38]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결혼 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2006.
- [39]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제39권, 제1호, 2006.
- [40] 한전숙 편, *현상학*, 민음사, 1998.
- [41]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2008.
- [42]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43] D. Collins, C. Jordan, and H. Coleman, *An Introduction to Family Social Work*,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역, *가족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1999.
- [44] J. W. Creswell,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질적연구방법론*. 학지사, 2005.
- [45] J. F. Kosciulek, “Relationship of family schema to family adaption to brain injury,” *Brain injury*, Vol.11, No.11, 1997.
- [46] Y. S. Lincoln and E. G. Guba,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1985.
- [47] M. McGoldrick and N. G. Preto, *Ethic Inter marriage for Therapy, Family Processes*, The Guilford Press: NY., 1984.
- [48] D. H. Olson, Commentary: Three-dimensional Circumples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Vol.30, 1991.
- [49]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Ontario: The Althouse Press, 1998.
- [50] 김오남,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제18권, 제3호, 2006.
- [51] 고기숙, 정미경,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대처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2012.
- [52] 성향숙,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적응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2011.
- [53] 성향숙,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2011.
- [55] 정순돌, 박현주, 오보람, “시부모와 외국인며느리가 지각하는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의 일치정도에 근거한 관계유형”,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1호, 2010.
- [56] J. Mancini and R. Blieszer,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pp.275-290, 1989.
- [57] J. Goetz and M. LeCompte, “Ethnography and qualitative research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y Press. 재인용: 조용환, *질적연구*, 교육과학사, 2002.
- [58] L. R. Forcey and M. Nash, “Rethinking Feminist Theory and Social Work Therapy,” *Women and Therapy*, Vol.21, No.4, pp.85-99, 1998.

저 자 소 개

박 병 금(Byung-Kum Park)

정희원



- 1997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06년 7월 ~ 현재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아동청소년복지